



주 제:	“ 성부, 성자, 성령 ”	“삼위 일체 대축일”	2009년 6월 7일
복음 묵상:	[마태 28,16-20]	[신명 4,32-34.39-40]	[로마 8,14-17]

오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호경과 영광송이 의미하듯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가 믿는 교의의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성부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성자는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세주 하느님이시며, 성령은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신 자연적, 초자연적 모든 생명을 계속 성장시킬 뿐 아니라 살려주시는 우리 신앙 생활의 협조자이시며 위로자 하느님이십니다. 이 세 위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믿어야 할 신비의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비의 교리는 우리 신앙의 바탕이요, 기초이며 중심입니다. 우리는 성삼계 대한 신앙생활을 보다 풍성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삼계 깊이 감사드리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을 창조주이신 성부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수난하시고 죽으신 성자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성삼계 대한 기도를 열심히 바쳐야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흠숭을 드려야 합니다. ‘영광송’과 미사 때 외우는 ‘대영광송’을 열심히 바쳐야 함은 물론 십자성호도 정성껏 긋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십자성호를 그을 때는 천천히 정성스런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정중히 해야 합니다.

십자성호를 긋는 행위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 세위가 계심을 믿고 자기의 믿음을 선언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성호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기도이면서도 가장 힘 있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삼의 이름으로 온갖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신앙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인격적인 삶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전주 강명구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효식 필립보네리 총무님은 금주에는 메릴랜드 주에 가게되어 다음주(6/14)에는 콜로라도에 다녀오게되어 성가대에 참석할 수없게되었습니다. 편안한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 신제원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은 금주 밀피다스 구역 모임을 주일에 진행함으로써 준비와 진행 관제상 성가대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세실리아 자매님; 모친 병문안차 한국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모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성가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조성숙 리따자매님 6월 초에 돌아오신다는 연락과 함께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를 위한 여름캠프
일시 및 장소: 7/10(금)-11(토). 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 Campground.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따스한 모닥불 앞에서 오손 도손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모두 성가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음 [마태 28,16-20]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1분 명상

♡'안심하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



(c) Simon Carter

그대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대가 '안심하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해 주면
그대를 믿고 안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가족조차도 그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 이의수의 《청춘불패》 중에서 -

* 믿고 안심하는 사람,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눈물이 핑도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완성자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미완성자입니다,
다만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 길을 가고자 서로 노력할 뿐입니다.

생활의 지혜

● 밥의 탄냄새를 제거하려면

나무주걱이나 나무도시락 뚜껑 같은 것을 밥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큰 숯덩어리를 한두 개 얹은 후 솔뚜껑을 닫아둔다. 얼마쯤 지나 솔뚜껑을 열어보면 탄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나지 않는다.

● 국수를 쫄깃쫄깃하게 삶기

국수를 삶을 때는 면발의 찰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맛을 살리는 중요한 요령이다.

먼저 냄비에 물을 충분히 붓고 끓인 뒤 참기름이나 식용유를 한 숟가락 넣는다.

그런 다음 국수를 세워서 풀어놓고 5분 정도 끓이다 물이 넘으려 할 때 찬물을 한컵 정도 붓고 저어준다.

그리고 국수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끓인 뒤 즉시 건져내 찬물에 두번 정도 씻으면 면발이 쫄깃쫄깃해 진다..